

검·경, '당원 명부 유출' 법 적용 고민 깊어간다

수사 결과 발표 지연에 광주시장 후보 경선 일정 돌입 부담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등 5가지 혐의 놓고 고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시기와 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검·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사착수 2개월이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한 데 따른 부정적 여론 확산과 민주당이 이번주부터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경선 후보' 작업에 들어간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광주지검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 광주경찰청에 당원명부유출과 관련, 광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인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민주당 당원명부와 이용섭측의 명부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확

인했다. 또 당원명부가 전 조직국장 A씨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점과 이 전 부위원장에게서 광주지역 당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 당시 이 전 부위원장 비서 B씨(일자리위 정책비서관·정무직 5급)의 계좌에서 나온 점 등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이 현재 적용을 고민 중인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크게 5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이 전 부위원장에게 '벌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선거법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사실상 이 전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다.

2017년 7월 개정된 선거법을 살펴보면, 공직선거기간이 아닐 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선거법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공무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 전 부위원장의 비서 B씨도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특정인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은 제외되며,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사람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도 이 전 부위원장에게는 부담이다. 이 법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홍보성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에서 지출한 B씨와 이 전 부위원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위원장은 광주시장 출마기자회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결제는 내가 직원에게 맡겨놓은 개인

돈에서 나온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부인한 상태다.

이 전 부위원장이 이 두 가지 혐의에서 벗어난다면 그의 비서 B씨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당법 위반을 적용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3가지 혐의는 B씨가 "누구의 지시나 상의도 없이 모든 행위를 스스로 판단해 했다"고 주장하면, 수사적용 범위가 대상을 이 전 부위원장 등으로 넓히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눈치보기식' 수사와 '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등으로 변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민주당 당원명부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 관계자는 "(당원 명부) 수사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 등을 알고 있다"며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객 158명 탄 여객선 흑산도 해상서 하마터면...

질은 해무 속 암초에 좌초 6명 가벼운 부상...전원 구조

승객 158명을 태운 정기 여객선이 짙은 해무를 무릅쓰고 항해하다 좌초됐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으나 다행히 일부 승객들만 가벼운 부상을 입고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

25일 오후 3시50분께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서 남해고속 소속 정기 쾌속여객선 '핑크돌핀호'(223)가 좌초됐다.

해경에 따르면 승객 158명, 선원 5명이 탑승한 해당 여객선은 흑산을 출발해 흑산

도를 거쳐 목포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선수가 암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충격으로 승객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승객은 구명 조끼를 입은 채 선내에 대기하다가 이날 오후 5시15분께 구조 선박에 옮겨 타고 목포로 이동했다.

여객선 관계자는 "질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선을 피하려다 바위에 걸렸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사고 해역은 전날 오후 7시께 안개주의보가 발효돼 이날 오전 11시께 해제됐으며 오후 5시께 다시 발효되는 등 연일 짙은 해무가 낀 상황이었다.

사고 당시 가시거리는 500m에 불과했다.

해경은 여객선 선장,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청와대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승객 구조 지원에 나섰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놀이기구 스톱... 탑승객 5명 2시간만에 구조

중외공원서...퓨즈 끊어져

광주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놀이동산(옛 어린이대공원)에서 운행 중인 놀이기구가 멈춰 탑승객 5명이 높이 4m에서 2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렸다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후 3시30분께 중외공원에서 놀이기구 '와이키키'가 멈췄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해당 놀이기구는 의자 20개가 설치된 1자형태 구조물이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던 중 45도로 기울어지면서 갑자기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지된 놀이기구는 A(여·28)씨 등 20~30대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반듯한 상

태에 한쪽이 공중으로 올라간 상태였다.

출동한 119는 바닥 에어매트, 안전줄 등을 설치한 뒤 탑승객 구조에 나섰다. 유압식 안전 장치에 해체에 시간이 걸려 2시간 뒤인 오후 5시30분께 전원 구조할 수 있었다. 탑승객들은 약간의 어지러움만 호소했을 뿐 특별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놀이기구는 지난 2004년 11월 14일에도 갑자기 멈춰 승객 14명이 1시간 만에 구조된 적이 있었다.

경찰은 "놀이기구 전원공급 장치 내 퓨즈가 끊어졌다"는 놀이기구 운영업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점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GM 군산공장 근로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국 GM 군산공장의 생산직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주변에 실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오후 4시 55분께 전북 군산시 미용동 한 아파트 부락에서 GM 군산공장 직원 A(47)씨가 숨져있는 것을 여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여동생은 A씨가 3일 정도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

A씨는 GM 군산공장에서 20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했으며, 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5월 말 희망퇴직이 확정된 상태였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산=박국경기자 nogusu@



25일 오후 3시50분께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쾌속 여객선이 좌초돼 승객 6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해경은 선장,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2년전 여수서 7명 사상

무궁화호 탈선사고

보조기관사가 운전

국토부 조사보고서 공개

2년 전 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무궁화호 탈선·전복사고'는 보조기관사가 기관사와 역할을 바꿔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4월 22일 오전 3시 40분께 여수시 율촌역 구내 선로 변경 지점에서 코레일 소속 무궁화호 1517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차가 전복되고 객차 4량이 탈선했다.

이 사고로 보조기관사 A씨가 숨지고, 기관사 B씨와 승객 등 6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사고 열차는 안전한 통로를 위해 속도를 시속 45km 이하로 줄여야 했지만, 시속 128km로 달리며 건널선을 통과하다 원시력을 이기지 못해 탈선·전복됐다.

이 같은 과속 운행은 역할을 바꾼 기관사가 변경된 운전명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코레일이 지정한 사고 열차의 기관사는 A씨, 보조기관사는 B씨였으나, 이들은 자체적인 내부 지침에 따라 서로 역할을 바꿔 B씨가 열차 운전을 맡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취업 미끼 수역 쟁전 사이비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자녀를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역원을 가로챈 6대 사이비 기자가 신고됨

○...25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최모(66)씨는 지난해 3월께 A(48)씨에게 '아들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2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11명에게 2억여원을 쟁전 혐의.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이전에 2차례의 취업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청소직 채용과 관련해 자신에게 3명의 할당분이 있다"며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도보적은 2000만원, 차량 운전직은 4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병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평가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평가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평가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평가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평가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